

참 고 문 헌

1. Fairhall, L.T.: Industrial Toxicology, P. 198, William & Wilkins, Baltimore, Md. (1949)
2. Smyth, H.F. Jr : Am. Ind. Hyg. Assn. Quart, 17. 136(1956)
3. Skog, E.: Acta pharmacol. 699(1950)
4. Iwanoff, N.: Arch. Hyg, 73, 338(1911)
5. Cook, W.: Ind. Med. 14, 938(1945).
6. Silverman, L., et al.: J. Ind. Hyg. and Tox 28, 265(1946)
7. Fassett, D.W.: F.A.: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Vol.II, 2nd Edition, P.1973, Ind Interscience, N.Y.(1963).

초 산(Acetic acid, CH₃COOH)

TLV-TWA, 10 ppm (약 25 mg/m³)

TLV-STEL, 15 ppm (약 37 mg/m³)

¹⁾ Sternner는 사업장의 현장에 있어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10 ppm이면 비교적 자극성이 없는 농도라고 결정짓고 있다. Patty는 800—1,200 ppm에서는 3분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였으며, Smyth는 쥐로 하여금 16,000 ppm의 개스를 흡입케 하였더니 다섯마리중 한마리가 죽었다고 하였다.

⁴⁾ Vigliani 와 Zurlo는 20—30 ppm의 농도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였고 12년동안 하루에 60 ppm에 7시간과 한시간은 100 내지 260ppm에 폭로되었던 근로자에 있어서 기도와 위장 피부에 약간의 자극이 있었을뿐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Parmeggiani 와 Sassi는 그들에게서, 결막염, 기관지염, 인두염, 이의 산식증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⁶⁾ Baldi는 10 ppm이하에서 결막에 자극을 준다고 하였으며, Amdur⁷⁾는 guinea pig에게 5 ppm의 초산을 흡입시켰더니 호흡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TLV시간가중평균치 10 ppm과 단시간 폭로한 계치 15 ppm이 과도한 자극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치로 권장되고 있으며 소련의 허용기준은 2 ppm으로 되어 있다.

참 고 문 헌

1. Sternner, J.H.: Ind. Med. 12, 518,(1943).
2. Patty,F.A.: Industrial Hygiene & Toxicology, Vol.II, p.886. Interscience , N.Y., (1949)
3. Smyth, H.F. Jr.: Am. Ind. Hyg. Assn. Quart.17, 143(1956)
4. Vigliani, E.C., Zurlo, N.: Arch. Gewerbeopath Gewerbehyg.13, 528-535, (1955). Abstracted in Arch Ind. Health 13, 403 (1956)
5. Parmeggiani, L., Sassi, C.: Med. lavoro 45, 319(1954), Cited in Patty, F.A. Industrial Hygiene & Toxicology, p.1779, 2nd Ed., Interscience, N.Y.(1963)
6. Baldi, G.: Med. lavoro 44, 403(1953), Abstr. in Arch. Ind. Hyg. & Occ. Med. 9, (1954)
7. Amdur, M.: Am. Ind. Hyg. Assn. J. 22, 1 (1961)